

朴通事新註新譯(八)*

李陸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 〈朴通事新註新譯(七)〉¹⁾의 후속 작업으로, 제56단락부터 제66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신기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背景和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第56話 貌隨福轉

孫舍那醜廝, 那裏將那般好衣服、好鞍²⁾馬來撇³⁾樣子? 那謊鬆⁴⁾, 一個財主人家裏招⁵⁾做女婿來。他如今⁶⁾吃的穿的無處發落⁷⁾裏。哥, 你說甚麼話? 他如今

* 이 연구는 2015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1) 中國學論叢 第44輯(2014년).

2) 鞍: 鞍子. 放在牲口背上馱運東西或供人騎坐的器具, 多用皮革或木頭加棉墊制成. 好鞍馬, 卽“好鞍子的馬”.

3) 撇: 裝; 擺出. 表演. 《竹葉舟》四折: 「看王留撇會科, 聽沙三嘲會歌。」(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962.)

4) 謊鬆: 疑是「謊廝」之誤寫. 謊廝, 也作謊廝. 騙子; 浮浪子弟. 元 岳伯川 《鐵拐李》第二折: 「有那等謊廝上門來。」(《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5) 招: 將男子招至女方家成婚, 納婿. 《寶娥冤》第一折: 「他爺爺兒兩個, 都在門首等候, 事已至此, 不若連你也招了女婿罷。」(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2353.)

6) 如今: “現今”、“而今”也. 如今語“現在”同. 太田辰夫著 蔣紹愚、徐昌華譯 《中國語歷史文法》: 「在中古和近古普通的用語中“現今”這樣的意思不用“現在”, 而經常是用“如今”、“而今”等. 就是在《紅樓夢》中, 用“現在”的也非常少, 而且多是強調事實確實存在, 而不是單純的表示時間. … “現在”常用作“現今”的意義是從清末開始的。」

7) 發落: 處置, 辦理. 安排. 《京本通俗小說·菩薩蠻》: 「明日分付臨安府, 量輕發落。」

氣象⁸⁾大起來，妝腰大⁹⁾模樣，只¹⁰⁾把我這久日弟兄伴當¹¹⁾們根底¹²⁾，半點也不睬¹³⁾！他要¹⁴⁾變時¹⁵⁾，誰睬他？他敬我五分刺¹⁶⁾，我也敬他十分；他敬我一分時，我敬他五分。這般時，是人倫弟兄之意。他不敬我時，我敬他甚麼屁¹⁷⁾？那厮如今倒¹⁸⁾可喜¹⁹⁾，可知²⁰⁾貌隨福轉。

- 8) 氣象：氣派，架勢。《石點頭》第五卷：「因見行止舉動，是個大人氣象，恐惹是非，不敢相近。」（許少峯 編，同前揭書，頁1487。）
- 9) 妝腰大：妝腰，應是“裝腰”。擺架子，裝腔做勢。也作“裝幗、裝天”。《古尊宿語錄》第五卷：「師到徑山，裝腰上法堂見徑山。」妝腰大，應是“裝幗做大、裝幗做勢”之省。裝腔作勢，擺架子。關漢卿《望江亭》第一折：「夫人，你不要這等裝幗做勢，那個着你到我這觀裏來？」（許少峯 編，同前揭書，頁1487。）【夾註】『質問』云：如人大氣像起來時，又粧妖氣，又作大模大樣，不禮待人，方言謂氣像大起來時，粧妖大模樣。一說，粧腰猶脩飾也；一說，腰大猶言大氣像也。
- 10) 只：竟，徑直。
- 11) 伴當：同伴，朋友。又作僕從，奴僕。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伴”字本為伴侶義，“黨”字也可指同伙、同類。…近代漢語作品中，可見“伴當”、“伴當”、“伴等”等詞，有伙伴、同伴和僕從二義，當系由“伴黨”演變而來。」（吉林教育出版社，1992年，頁13。）
- 12) 根底：根，同“跟”。亦作“跟底”。跟前，身邊，面前。《爭報恩》四【側磚兒】：「我這裏急慌忙那身起，大走到向他根底。」（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106。）
- 13) 睬：理睬，答理。
- 14) 要：倘使，如果。《醒世姻緣傳》四一回：「要不就是後娘，要是親娘，可也舍不的這們降發那兒。」（許少峯 編，同前揭書，2008年，頁1352。）
- 15) 時：表示假定的語助詞。多用在假設分句後。按：類似現代漢語的“（要是）…的話”。（拙稿，《中國學論叢》，25輯）《黃鶴樓》一折白：「玄德公也，若你不來時，萬事罷論；若來呵，便插翅也飛不過大江去。」用在條件復句的前一分句末尾，表示假設、原因、條件等。
- 16) 刺：語助詞，同“哪”。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表示感歎、呼喚的“那”在元曲中偶或又記作“刺”“喇”。例如：“不刺！你啼哭，你為甚迭？”（《元刊拜月亭》第3折）”“哪”“刺”“喇”在使用上的共同特點是偏重於表示強烈的感歎語氣，…因此“哪”“刺”“喇”跟“那”並不完全相同，而只是繼承了“那”的部分用法，主要是繼承了“那”的非疑問的表感歎的用法。…“哪”只是表示感歎，起加強語氣的作用。」（語文出版社，1999年，頁126～127。）
- 17) 屁：罵詞：用於對事物的不堪、不屑等。《水滸全傳》第二五回：「便罵你這馬泊六，做牽頭的老狗，直甚麼屁！」或對人之不屑。（許少峯 編，同前揭書，頁1430。）
- 18) 倒：猶却，猶反而。“道”、“到”、“倒”，音義並同，用作轉折詞。
- 19) 可喜：俗語，美好之事，重言之，則可曰可喜喜，猶云可愛。或作可嬉、可戲、吃喜…隨文生訓，除可愛意義外，尚有：作有趣解者，…猶云好事也。（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頁262。）
- 20) 可知：也作“可知道”。此作“想來，想必”。《醒世恒言》卷十四：「這女孩子心裏暗暗地喜歡，自思量道：『若是我嫁得一個似這般子弟，可知好哩。』」（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頁452。）

【번역】

甲某: 손(孫)가 그 추악한 놈이, 어디서 그렇게 좋은 옷과 멋진 안장(鞍裝)을 한 말을 타고 거들먹거릴까요?

乙某: 그 사기꾼 놈이²¹⁾, 어떤 부잣집의 데릴사위로 갔다고 하네. 그놈은 이제는, 먹고 입는 것들은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네.

甲某: 형님! 그런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乙某: 그 자가 요즘 기세가 등등하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하고서는, 우리의 옛 형제들과 동무들에게도, 전혀 아는 척도 하질 않았어!

甲某: 그가 변했다면 누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 해주면 난 더욱 잘 대해줄 것이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 또한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의 도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는데, 내가 왜 떠받들겠습니까?

乙某: 지금 그자의 신수가 좋은 걸 보니, 사람의 길모습은 가진 것(福)에 따라 흰하게 변하는가봅니다.

第57話 丹楓八月好時節

咱悶當不的, 一個日頭²²⁾咱商量着, 游山玩景去來。好! 好! 我也那般想着。

如今²³⁾更²⁴⁾秋涼丹楓八月好時節, 正好山中之味。咱那個山裏去好? 這離城三十

21) 原文의 '謊鬆' 一詞에 대해서 그 用例를 찾을 수 없다. 近代漢語詞典에서 '사기꾼', '강패'의 의미를 가지는 비슷한 어휘로는 '謊子', '謊廝', '謊賊', '謊漢' 등을 찾을 수 있다. 다만 影印本 《譯語類解》(서울 亞細亞文化社 刊, 28쪽 b면)에서 '謊鬆'의라는 어휘와 함께 '거짓말 하고 섭섭히'라는 諺解의 풀이를 볼 수 있다.

22) 日頭: 日子.

23) 如今: "現今"、"而今"也. 如今語"現在"同. 在中古和近古普通的用語中"現今"這樣的意思不用"現在", 而經常是用"如今"、"而今"等. 就是在《紅樓夢》中, 用"現在"的也非常少, 而且多是強調事實確實存在, 而不是單純的表示時間. … "現在"常用作"現今"的意義是從清末開始的。(太田辰夫著, 蔣紹愚、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頁259.)

里來地²⁵⁾，有個山名喚禪頂山，真個奇妙。那山景致，尖尖險險的山，灣灣曲曲的路。松、柏、檜、栗諸雜樹木上，纏着乞留曲律²⁶⁾的藤。有累累垂垂石，有高高下下坡，有重重疊疊奇峰，有深深淺淺澗²⁷⁾。有一簇兩簇人家，有凹坡凸岭庵堂。有睨睨²⁸⁾皖皖²⁹⁾的山禽聲，有崔崔³⁰⁾巍巍的棧道³¹⁾。崖高道窄，只是這個愁人腸。栗子、葡萄滿山峪，遠望一似黑水精³²⁾。五色彩雲籠罩，山頂上有一小池，滿滿荷花香噴噴。僧尼道俗³³⁾都隨喜³⁴⁾去，咱也拄³⁵⁾着拄杖³⁶⁾，沿山沿峪隨喜那景致來去。只是平平斜斜石徑難行。碍甚麼事？常言道：逢山開路，遇水迭橋。

【번역】

甲某: 무척이나 답답한데 날을 잡아 우리 산천경개 구경이나 갑시다.

乙某: 좋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가을 찬바람이 불어 단풍이 물드는 8월의 좋은 계절이니, 산중의 멋을 즐기기에 딱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산으로 가는 것이 좋을 까요?

24) 更：況且，何況。王實甫《西廂記》三本一折：「凭着舌尖兒上說詞，更和這箇帖兒裏心事，管教那人兒來探你一遭兒。」（許少峯編，同前揭書，頁396。）

25) 地：路程。

26) 乞留曲律：亦作“乞留屈律”、“乞量曲呂”。形容彎彎曲曲的樣子。元·無名氏《黃鶴樓》第二折：「你過的這乞留曲律蚰蜒小道。」（高文達主編，同前揭書，頁617。）

27) 澗：夾在兩山間的水溝。

28) 睨睨：也作“倪倪”，眼睛不敢睜大的樣子。小心害怕或低聲下氣的樣子。

29) 皖皖：明亮貌。

30) 崔崔：高大貌；高峻貌。

31) 棧道：在險絕處傍山架木而成的一種道路。

32) 水精：水晶。

33) 道俗：出家之人與世俗之人。清孔尚任《桃花扇·入道》：「你看兩廊道俗，不計其數，瞧瞧何妨。」

34) 隨喜：佛教語。謂歡喜之意隨隨瞻拜佛像而生。因用以稱游謁寺院。元·王實甫《西廂記》第一本第一折：「隨喜了上方佛殿，早來到下方僧院。」《醒世恒言·張淑兒巧智脫楊生》：「見寺宇整齊，進來隨喜。」顧學頤校注：「本是佛教徒瞻拜佛像，隨像發生歡喜心的意思；一般當做參觀佛寺解釋。」

35) 拄：應是“拄”。

36) 拄杖：手杖。魯迅《故事新編·采薇》：「他們就滿心高興，用拄杖點着山徑，一步一步的挨上去。」

甲某: 이곳에서 약 30여리 떨어진 거리에 禪頂山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참으로 멋집니다.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구불구불한 산길이며,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그리고 밤나무 등 온갖 나무에는 칙덩굴이 휘감겨져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높고 낮은 언덕하며, 첩첩의 산봉우리와 깊고 얇은 계곡물이 놓여 있습니다. 간간히 인가가 보이고, 언덕과 산봉우리에 암자가 보입니다. 멀리서 지저귀는 산새소리와 웅장한 잔도(棧道)가 벼랑에 걸려 있습니다. 벼랑은 높고 길은 좁아서 간담을 써늘하게 합니다. 밤과 포도 등의 열매는 산골짜기에 가득하여, 멀리서보면 마치 검은 水晶처럼 보입니다. 오색 빛깔의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나고, 산봉우리 작은 언뫼에는 가득 핀 연꽃의 향기가 그윽합니다. 출가한 사람이나 세속의 사람들은 모두 절구경가니, 우리도 지팡이를 짚고서 산 따라 계곡 따라 절 구경 갑시다. 다만 고르지 못하고 경사가 심한 돌길 가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乙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속담에 ‘逢山開路, 遇水迭橋(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第58話 種菜來

聽的³⁷⁾賣菜子³⁸⁾的過去³⁹⁾麼? 買些菜子兒, 後園裏種時好。夜來⁴⁰⁾個⁴¹⁾都

37) 的: 動詞後綴。也作“得”。關漢卿《裴度還帶》二【煞:】「我則理會的先王之道斯爲美: 正是不患人之不己知。」(藍立葵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61。)

38) 菜子: 泛指一般蔬菜的種子。宋·楊萬里 《夢菜種》詩:「菜子已抽蝴蝶翅, 菊花猶著郁金裳。」

39) 過去: 通過。

40) 夜來: 猶云昨日也。《西廂》一之二:「本云:“夜來老僧不在, 有失迎迓, 望先生恕罪。”生云:“欲來座下講聽, 不期昨日不得相遇, 今能一見, 是在下三生有幸矣。”法本口中曰夜來, 張生口中曰昨日, 夜來即昨日也。(張相, 《詩詞曲語辭匯釋》, 上海古籍出版社, 2009年, 頁652。)

41) 個: 語氣助詞。此作名詞後綴。曹廣順 著 《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 1995年, 頁148。):「助詞“個”的產生和發展, 只是量詞“個”發展史中的一個支流, …‘我聞伊, 夜來得一夢, 你

收割了麻，種菜來。麻骨⁴²)一邊收拾，下着⁴³)用着⁴⁴)。種甚麼菜來⁴⁵)？蘿蔔⁴⁶)、蔓菁⁴⁷)、高苳⁴⁸)、葵菜⁴⁹)、白菜⁵⁰)、赤根菜⁵¹)、園葵⁵²)、蓼子⁵³)、葱、蒜、薤⁵⁴)、荊芥⁵⁵)、薄荷、茼蒿⁵⁶)、水蘿蔔⁵⁷)、胡蘿蔔⁵⁸)、芋頭、紫蘇⁵⁹)都種來。紫蘇這廝好吃，把那葉兒摘了，着⁶⁰)線串上，吊在一壁廂⁶¹)，一冬

便說個詳細(張協狀元，二出)。「昨日個庄門外，柳影裏問情懷(劉知遠諸宮調)」。以上這些例子，用在動詞之後，用在名詞之後，它們都沒有什麼明確的詞義，去掉之後，原來動詞、名詞意義、功能都沒有變化，這些“個”只是一些詞綴罷了。」

- 42) 麻骨：麻秆浸濕後晾乾，可用于照明。比較耐于燃燒，起火把的作用，持續時間比較長。使用時可用暗火，吹燃即為明火。
- 43) 下着：做準備。《警世通言》卷三一：「[趙春兒]教可成再鋤下去，鋤出一大瓷罈，內中都是黃白之物，不下千金。原來春兒看見可成浪費，預先下着，悄悄地埋藏這許多東西。」(高文達 主編，同前揭書，頁853。)釋義：本謂下棋落子。善弈者往往先于某處下一子，以備將來之用，故亦稱做準備為“下着”。
- 44) 用着：用。着，用。關漢卿《哭存孝》二【尾聲】：「你把那康軍(君)利(立)、李存信，用着你那打大蟲的拳頭着一頓。」(藍立英 編著，同前揭書，頁358。)
- 45) 來：此作語助詞，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
- 46) 蘿蔔：根莖類蔬菜，又名菜菔、水蘿蔔，根肉質，長圓形、球形或圓錐形，原產中國，品種劇多，有綠皮、紅皮和白皮的。
- 47) 蔓菁：又名 芙蓉又稱葍，俗稱大頭菜。
- 48) 高苳：菊科，高苳屬，一、二年生草本植物。高苳可分為葉用和莖用兩類。高苳的名稱很多，在本草書上稱作“千金菜”，“高苳”和“石苳”。葉用高苳又稱春菜、生菜，莖用高苳又稱高筍、香筍。
- 49) 葵菜：又名冬葵，民間稱冬苳菜或滑菜。屬錦葵科植物。李時珍說：“葵菜，古人種為常食，今之種者頗少”。(摘自 百度)
- 50) 白菜：俗稱“大白菜”。
- 51) 赤根菜：菠菜的別名。因根紅而稱。
- 52) 園葵：即香菜。北方一帶人俗稱“芫荽”。別稱，香荽、胡 菜、原葵、園葵、芫荽等。“芫荽”狀似芹，葉小且嫩，莖纖細，味郁香，是湯、飲中的佳佐。
- 53) 蓼子：蓼，亦稱“水蓼”。一年生草本植物，葉披針形，花小，白色或 淺紅色，果實卵形、扁平，生長在水邊或水中。莖葉味辛辣，可用以調味。全草入藥。
- 54) 薤：薤又名蒜頭或作刺頭，小蒜、薤白頭、野蒜、野韭 等。百合科葱屬多年生草本，一種蔬菜類植物。
- 55) 荊芥：原名“假蘇”，土名“姜芥”，是唇形科植物。
- 56) 茼蒿：即蓬蒿。一年生或二年生草本植物。葉互生，長形羽狀分裂，花黃色或白色，瘦果稜，高二三尺，莖葉嫩時可食，亦可入藥。
- 57) 水蘿蔔：(一) 水蘿蔔，商陸的別名之一，系商陸科商陸屬多年生宿根草本植物。生于路旁疏林下，或栽培于庭園。商陸，又名蓬蒿、當陸、章陸、牛蘿蔔、春牛頭、濕蘿蔔、章柳根等。(二) 同時，水蘿蔔也是蔬菜蘿蔔的同名同物。(摘自 百度)
- 58) 胡蘿蔔：又稱甘苳，是傘形科胡蘿蔔屬二年生草本植物。
- 59) 紫蘇：古名荳，又名白蘇、赤蘇、紅蘇、香蘇、黑蘇等。是一種可藥用的植物。
- 60) 着：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 編，同前揭書，頁2452。)
- 61) 一壁廂：一邊，一旁。《盛世恒言》 三一卷：「鄭信低頭看時，見一壁上一個水口，却好容得

裏熬⁶²)吃好。水芹菜⁶³)也修理⁶⁴)的好着⁶⁵)。叫將⁶⁶)翠兒、春喜來，拔野菜去。拔將小蒜⁶⁷)、田菁⁶⁸)、薺菜⁶⁹)、苳苳⁷⁰)，都拔將來，把苳苳來煮吃。那廝你西園裏種些冬瓜、西瓜、話瓜、插葫⁷¹)、稍瓜⁷²)、黃瓜、茄子。着那丫頭⁷³)菜市裏買將些山茶來。買些拳頭菜⁷⁴)、貫衆菜⁷⁵)、搖頭菜⁷⁶)、蒼朮菜來。我們大家嘗新。那廝把菜園修理的好，休嫌生受⁷⁷)，古人道：“無功食祿，寢食難安”

身，挨身入去。」(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361。)

- 62) 熬：烹調方法，把蔬菜等放在水裏煮。
- 63) 水芹菜：水芹屬於傘形科，水芹菜屬。多年水生宿根草本植物。水芹別名水英、細本山芹菜、牛草、楚葵、刀芹、蜀芹、野芹菜等。
- 64) 修理：整治，收拾。
- 65) 着：同“者”。語尾助詞，猶“吧”。
- 66)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 67) 小蒜：又名山蒜、野蒜。
- 68) 田菁：又叫 城青、滂豆。
- 69) 薺菜：薺、靡草、花花菜、護生草等。
- 70) 苳苳：疑是“人苳菜”。“人苳菜”即“莧菜”。莧科莧屬一年生草本植物，葉對生，卵形或菱形，有綠紫兩色。花黃綠色。種子極小，黑色而有光澤。嫩苗可作蔬菜。“人苳菜”是“莧菜”之土名。莧菜又名野莧菜、山杏菜、山苳菜、赤莧、雁來紅 等等(摘自 百度)。按，“苳苳”一詞辭書未見，疑“苳苳”與“人苳”音近而誤寫。周茂榮 <心隨“陡河南流去”>：「野菜：記得童年下午放學後，邀上三五伙伴，第一營生是挖野菜。滿筐野菜有老有嫩，老的喂豬，嫩的人吃，天天如此幾成慣例。在饑饉年頭，野菜更是供人們充飢度荒的寶貝，馬齒莧、黃西菜、人苳菜、苳賣菜…在糠菜半年糧的日月為鄉民填飽了饑腸飢腸，實在功不可沒。(唐山勞動日報，2011年 4月) 按，“苳(苳菜、苳菜)”是一種多年生水生草本，具心形葉和香蕉似簇生塊莖。莖細長，節上生根，沉沒水中。葉對生，漂浮水面。夏秋開黃花，謂之“苳菜”。“苳菜”，亦稱為“梟葵”、“苳菜”等。
- 71) 插葫：【夾註】『質問』云：如葫蘆，長一二尺者方言謂之“插葫”。
- 72) 稍瓜：越瓜的別名。又稱菜瓜。明 李時珍《本草綱目·菜三·越瓜》：「越瓜以地名也，俗名稍瓜，南人呼為菜瓜。」
- 73) 丫頭：古代女孩子在及笄之前，頭上都要梳着兩個“髻”，左右分開，對稱而立，像個“丫”字，所以稱為“丫頭”。① 使如，婢女。② 俗稱女兒。③ 泛稱未婚子女，姑娘。
- 74) 拳頭菜：又名為蕨台、蕨、龍頭菜、貓爪、鹿蕨菜等。
- 75) 貫衆菜：應是“貫衆”。藥名為“兩色鱗毛蕨”，俗稱“貫衆”。
- 76) 搖頭菜：就是“刺嫩芽”。別名：刺嫩芽、刺龍芽、刺老芽、遼東樛木、龍芽樛木、鵲不踏等。
- 77) 生受：此作“艱難困苦”。元 金仁杰《追韓信》二【掛玉鉤】白：「元來這打魚的覓衣飯吃，更是生受。」(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983。)

【번역】

甲某: 씨앗을 파는 장사치가 지나간 소리를 들었느냐? 씨앗을 좀 사서 뒤뜰에 심으면 좋을 것이다. 어제는 삼(麻)을 모두 베어냈으니, (오늘은) 채소를 심어야겠다. 삼대(겨릅대)⁷⁸는 곧 쓸 것이니 한쪽에 정돈해 놓아라.⁷⁹

乙某: 어떤 채소들을 심으시겠습니까?

甲某: 무(蘿蔔)⁸⁰, 순무(蔓菁)⁸¹, 상추(高苣)⁸², (아욱)葵菜⁸³, 배추(白

78) 原文 ‘麻骨’은 ‘겨릅대’라고 하는데, 껍질을 벗겨낸 삼대를 말한다. ‘겨릅대’는 그 쓰임이 많아서 짚 대신 이엉으로 엮어 지붕을 올리거나, 겨릅대를 엮어 밭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79) 原文 ‘麻骨一邊收拾, 下着用着’에 대한 諺解는 「삼대를 한쪽에 잘 챙겨두었다가 쓰자」이다. 이에 王霞 등이 譯註한 《譯註朴通事諺解》(학고방, 2012년, 225쪽)에서도 ‘麻骨一邊收拾下着, 用着’라고 斷句를 하고 ‘삼대는 한쪽에 잘 챙겨두었다가 쓰자’라는 번역을 볼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삼대를 한쪽에 잘 챙겨두었다가 쓰자’一句를 中國語로 번역을 한다면 ‘(你)把麻骨好好兒收拾, 放在一邊, 以後要用’ 등과 같은 ‘把字文’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原文 ‘麻骨一邊收拾下着’는 ‘삼대를 한쪽에 챙겨두다’를 우리말의 語順에 따라 중국어 어휘를 나열한 것일 뿐, 中國語語法에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라고 본다. 處置의 結果를 강조하는 이러한 ‘把字文’의 이러한 用例는 《朴通事諺解》本文中에서 얼마든지 그 다양한 用例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把溺葫蘆正着那窟籠裏放了, 把尿盆放在地下. 見孩兒啼哭時, 把搖車搖一搖便住了. (오줌을 받는 조롱박을 구멍에 바로 놓고, 요강을 그 밑에 놓습니다. 아이가 울거든 요람을 흔들면 곧 울음을 그칩니다)」(《朴通事諺解》上卷 50 쪽) 등이 그것이다. 앞의 註 43)번과 44)에서처럼 原文 ‘下着’와 ‘用着’ 각각 ‘做準備(준비를 하다)’와 ‘用着(쓰다, 사용하다)’의 의미로 보고, ‘下着用着’를 ‘(앞으로 쓸 준비를 하다)라고 번역을 하였다.

80) 原文 ‘蘿蔔’은 지역에 따라서는 무수·무시라고도 부른다.

81) 原文 ‘蔓菁(만청)’은 ‘순무’라고도 한다. 무의 하나로 뿌리가 통통하며 물이 많고 흰색, 붉은색 자주색을 띤다. [네이버 지식백과(무와 나박김치)]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가 있다: 「나박김치는 무를 얇고 네모지게 썰어 절인 뒤에 고추나 파, 마늘, 미나리 등을 넣고 국물을 부어 익힌 김치를 말한다. 나박은 무의 漢字語인 나복(蘿蔔)의 음이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박김치는 무로 담근 김치이다. ...무에는 크게 나복(蘿蔔)과 만청(蔓菁) 두 종류가 있다. 고어(古語)로 나복은 ‘뗏무우’, 만청은 ‘씻무우’라 하였다.」(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2011.5.23)

82) 原文 ‘高苣’는 상추를 말함이다. 청채(青菜) 또는 생채(生菜)라고도 한다. 앞의 註 48)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高苣(와거)’는 잎과 줄기로 나누는데, 쌈을 싸먹는 (상추)잎을 ‘春菜(춘채), 生菜(생채)’라고 하고, (중국에서 볶아먹는) 줄기를 ‘蒿笋(와순), 香笋(향순)’이라고 한다.

83) 原文 ‘葵菜’는 아욱이다. 苣(葵), 노꺾(露葵) 등으로 불리는 한해살이 풀이다. 앞의 주 49)번에서처럼 근래의 중국인들은 아욱을 먹지 않지만, 우리는 아욱을 국으로 끓여 즐겨먹는

菜), 시 금치(赤根菜), 고수풀(園葵)⁸⁴, 여뀌(蓼子)⁸⁵, 파, 마늘, 염교⁸⁶, 형개(荊芥)⁸⁷, 박하(薄荷), 茺蒿(쑥갓)⁸⁸, 자리공(水蘿蔔)⁸⁹, 흥당무(胡蘿蔔), 토란(芋頭), 자소(紫蘇)⁹⁰ 등을 모두 심도록 하자. ‘자소(紫蘇)’는 맛이 있어, 잎을 따서 실에 꿰어, 한 쪽에 매달아두었다가, 겨울에 삶아 먹으면 참으로 맛있다. 미나리(水芹菜田)깡도 손을 좀 보거라. 翠兒와 春喜에게 들나물들을 캐오라고 해라. 달래(小蒜)⁹¹, 사라부루(田菁)⁹², 냉이(薺菜), 비름(莧菜)⁹³ 등을 캐어오고, 비름나물은

다.

- 84) 原文의 ‘園葵’는 ‘고수풀’이라고 하는 향이 강한 식물인데, 현재 중국에서 상차이(香菜: 향채)라고 불리는 채소이다. 호유실·빈대풀이라고도 한다.
- 85) 原文 ‘蓼子’는 ‘여뀌’라는 풀로,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이다. 수료(水蓼)·택료(澤蓼)·천료(川蓼)라고도 한다. 습지 또는 냇가에서 자란다.
- 86) 原文의 ‘薺’는 ‘염교’다. 염교는 백합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중국이 원산지이고 비늘줄기는 무릇 같은 풀로서 매운 맛이 있어 절여서 먹는다. 예를 들어 초밥을 먹을 때 마늘깡다리나 파뿌리 같은 초절임이 바로 염교다. ‘薺(해)’에 대한 諺解는 ‘부치(부추)’인데, ‘부추’의 漢字는 ‘韭(韭)’이다. ‘부추’는 달래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韭菜(구채)’, ‘술’, ‘정구지’ 등으로 불린다. ‘薺(염교)’와 ‘韭(부추)’는 다른 것이다.
- 87) 原文 ‘荊芥’는 꿀풀과에 속하는 一年生草本植物이다. 假蘇(가소)라고도 하고, 또 ‘一捻金(일념금)’, ‘鼠萆(서명)’, ‘姜芥(강개)’ 등으로 불린다.
- 88) 原文 ‘茺蒿’는 ‘쑥갓’으로,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이다. 諺解는 ‘물쑥(물쑥)’인데, ‘물쑥’은 ‘쑥’의 한 종류로서 냇가 또는 습지에서 잘 자란다. ‘물쑥’은 ‘芦蒿(호호)’, ‘蕒蒿(루호)’, ‘水艾(수애)’, ‘水蒿(수호)’라고도 한다.
- 89) 原文 ‘水蘿蔔’에 대한 諺解는 ‘물한 댕무우’인데, 아마도 ‘(물)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註 57)번에서처럼 ‘水蘿蔔’은 ‘商陸(상육)’과 ‘蘿蔔(무)’ 두 가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本文에서 이미 무 종류인 ‘蘿蔔’과 ‘蔓菁’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商陸(상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商陸’은 ‘當陸(당육)’, ‘馬尾(마미)’, ‘章柳(장류)’, ‘白昌(백창)’, ‘水蘿蔔(수라복)’, ‘夜呼(야호)’ 등으로도 불린다. 《새 우리말 큰사전》에서 「자리공. 뿌리는 商陸이라 하여 약재로 씹」이라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자리공’은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자리공과의 여러해살이풀. 當陸, 章柳, 자리갱이, 장늑, 상륙이라고도 한다. 중국 원산이며 집 근처에서 자란다. 뿌리는 무같이 굵고 아래 방향으로 가늘게 자란다.
- 90) 原文 ‘紫蘇’는 ‘차조기’, ‘차즈기’라고도 한다. 들깨와 닮았는데, 전체에서 자줏빛이 돌고 향이 짙다. 어린잎을 쌈으로 먹고, 송송 썰어 비빔밥에 넣기도 한다. 간장이나 된장에 박아 장아찌를 담가도 맛있다. 튀김이나 부각도 한다. 열매는 익기 전에 꽃차례를 뜯어 장아찌를 담거나 튀김을 한다. (네이버 지식사전)
- 91) 原文 ‘小蒜’은 달래로, 漢字語로는 야산(野蒜), 산산(山蒜), 소송(小摠)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죽지’, ‘산마늘’ 등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 92) 原文 ‘田菁’의 諺解는 ‘샤티울’이다. ‘샤티울’은 ‘사라부루’의 옛말이다. 「사라부루는 ‘쉽싸리’의 한 종류이고, 모양이 차조기와 비슷한데, 잎과 뿌리는 무처럼 먹는다」라는 우리말 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 93) 原文 ‘苳苳’에 대한 중국 문헌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諺解에서 ‘비름’이라는 설명을

삶아서 먹자. 자네는 서쪽 채 소밭에 동아(冬瓜), 수박, 참외, 조롱박(插葫)⁹⁴, 울외(稍瓜)⁹⁵, 오이, 가지 등을 심게나. 저 아이를 시켜 시장에 가서 산나물들을 사오라고 하게나. 고사리(拳頭菜), 관중(貫衆)⁹⁶, 두릅나물(搖頭菜)⁹⁷, 삼주(蒼朮菜)⁹⁸ 등을 사다가 우리 모

볼 수 있다. '비름'의 漢字 이름은 '莧菜(현채)'이다. 그런데 인터넷 [네이버]에서 '荂苳'을 쳐보면 '현(莧), 소채(蔬菜)의 하나. 비름. 현채(莧菜). 인행(荂苳). 용례: 현(莧) (비름 현. 세속에서 현채라고 부르는데, 또 칭하기를 인행이라 한다. 또 쇠비름은 마치현이라 한다.); 莧(비름 현 俗呼莧菜 又稱荂苳 又쇠비름 曰 馬齒莧) [훈몽자회 상권, 7장 뒤쪽]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라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 '荂苳' 一詞는 《朴通事諺解》本에서만 볼 수 있고, 改修本인 《朴通事新釋諺解》에서는 刪改되고 보이지 않는다. 《훈몽자회》나 《朴通事新釋諺解》 모두 崔世珍에 의하여 간행되고 諺解되었다. 앞의 註 70)번에서 '莧菜'를 현재 중국의 일부지방에서는 '人荂菜(인행채)'라고 부르는데, 혹시 '人荂'을 '荂苳'으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았다. '苳'은 '노랑어리연꽃'과 그 열매인 '마름'을 일컫는 말로, '荂菜(행채)'라고도 한다.

- 94) 原文 '插葫'에 대한 諺解는 '즈러박'이다. '즈러박'은 '자루달린 바가지'라는 《李朝語典》(劉昌淳 著, 延世大學校 出版社)의 설명을 볼 수 있고, 앞의 주 71)번의 '夾註'에서 '조롱박과 같고, 한 자에서 두 자 정도의 긴 것을 方言에서는 '插葫'라고 한다' 설명을 볼 수 있다.
- 95) 原文 '稍瓜'의 諺解는 '수비외'다. '稍瓜'는 '越瓜', '菜瓜'의 別名이다. 다음의 글은 <울외 장아찌, 군산 특산물로 키운다>(황교익, 중앙일보 2009년 11월 02일 - 네이버)에서 발췌한 글이다: 「울외는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참외와 비슷한 식물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참외에 비해 단맛이 없고 크다. 생과일로 먹지 않다는 것이 참외와 많이 다르다. 울외는 한국인에게 생소한 작물이다. ... 울외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흔히 먹는다. 越瓜(월과), 菜瓜(채과), 白瓜(백과) 등의 한자로 표기한다. 품종도 다양하여 대과종은 질여서, 소과종은 생채요리를 해서 먹는다. '울외'라는 이름은 최근에 지어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白瓜라고 쓰고 しろ-うり(시로-우리)라 읽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우리'(瓜)를 '울'로 따오고 여기에 참외의 '-외'를 붙여 이런 이름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윗글에서 '울외'는 '절여서 또는 생채로 먹는다'라는 설명과 함께 '울외'라는 이름이 붙여진 내력을 볼 수가 있다. 울외로 만든 이러한 음식을 '울외장아찌'라고 한다. 다음은 중국인이 소개한 '울외', 즉 '稍瓜'에 대한 조리법인데, 우리의 "울외장아찌"와 비슷하다: 「 요즘 시장에는 '稍瓜(울외)'가 나왔다 - '稍瓜'는 또 '菜瓜', '越瓜'라고도 한다. 어린 '울외'는 껍질이 얇고 씨가 부드러워 채를 쳐서 기름에 볶거나 절여서 물기를 빼고 생강과 마늘 등을 넣고 무치면 입맛에 맞는 제철음식이다. 칠월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껍질이 두꺼워지는데 장아찌를 만드는 데 적당하다. (近日, 菜市上有稍瓜出售。 - 考'稍瓜'之名, 又稱菜瓜和越瓜。剛下瓜秧的稍瓜皮薄籽嫩, 切成小片, 以素油清炒; 也可現切現搗, 濾去水分, 佐以姜蒜涼拌, 都是生津開胃的時令清品。到七月中下旬, 天氣更加炎熱, 稍瓜的皮開始變厚, 一般以做醬稍瓜爲宜。(摘自百度) '稍瓜'에 대해 '수세미'라고 새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수세미'의 漢字 이름은 '絲瓜'이다. '絲瓜(사과; 수세미)'는 '天羅', '綿瓜', '布瓜', '天洛瓜' 등으로 불린다.
- 96) 原文 '貫衆(관중)'의 諺解는 '회초미치다'. '회초미치'는 '관중(면마과의 여러해살이풀)의 옛 이름이다. 말린 뿌리줄기는 '면마근'이라 하여 구충제로 사용하다.
- 97) 原文 '搖頭菜'의 諺解는 '두릅치다'.
- 98) 原文 '蒼朮菜'의 諺解는 '삼두치다'. '삼두치'는 '삼주(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의 옛말이다.

두 함께 햇나물을 먹어보세. 자네는 채소밭이 나 잘 손질하게나. 옛말에 ‘無功食祿, 寢食難安(공적이 없는데 녹봉을 받으면, 자나 먹으나 불안하다)’라는 말이 있다네.

第59話 如今怎麼那般賊廣

如今怎麼那般賊廣⁹⁹⁾? 今年天旱, 田禾不收, 因此上¹⁰⁰⁾賊廣。使鉤子的賊們更是廣。拿着取燈兒¹⁰¹⁾, 到那一個人家裏, 舌尖潤¹⁰²⁾開了窗口, 吹¹⁰³⁾起火來, 鑽入裏面。看東西在那裏¹⁰⁴⁾時¹⁰⁵⁾, 知道了的¹⁰⁶⁾之後, 却吹殺那燈, 不論竿子上的、櫃子上的物件, 便着¹⁰⁷⁾鉤子鉤出來, 將去。那廝們只是¹⁰⁸⁾夜猫¹⁰⁹⁾, 不

‘한방에서는 뿌리줄기를 창출(蒼朮)이라는 약재로 쓰이고,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 99) 廣：多，衆。元·高文秀《黑旋風》第一折：「泰安神州謊子極多，哨子極廣，怎生得一個護臂跟隨將我去方可。」（許少峯編，同前揭書，頁689。）
- 100) 上：原因，方面。也作“上頭”。或作“上起”。徐本《陳搏高臥》四【步步高】：「命不快上遭逢着這火醉婆娘，干誤了我晚夕參聖一爐香，半夜裏觀乾象。」（劉堅·江藍生主編，同前揭書，頁278。）又元·無名氏《小孫屠》戲文第九出：「後來因此閑言語上，不曾踏上它門。」《水滸傳》第四回：「洒家不瞞你說，因為你上，就那日回到壯元橋下，正遇着鄭屠那廝，被洒家三拳打死了。」（高文達主編，同前揭書，頁687。）又，元·朱凱《昊天塔》一折：「他將我這尸骸恁般摩弄，因此上向兒行一星星悲控。」（許少峯主編，同前揭書，頁990。）
- 101) 取燈兒：引火具。用松木片一頭塗上硫黃，擦之以引火。其作用猶如現今之火柴。明·缺名《李雲卿》第二折：「用黃線香一根，去東華門外邊一個銅錢買一把取燈兒點着線香，以取燈兒燒之，其火自明。」（許少峯編，同前揭書，頁1554。）【夾註】『南村輟耕錄』云：杭人削松木為小片，其薄如紙。鎔硫黃塗木片頂分許，名曰發燭，又曰焠兒。宋陶學士『清異錄』云：夜有急，苦於作燈之緩，批杉木條染硫黃，一與火遇，得焰必速，呼為引光奴。今之取燈兒，其遺制也。今按：舊本作“吹燈兒”。焠，音“綉”，則舊本“吹燈”之名，恐或為是。
- 102) 潤：滋潤，使濕。
- 103) 吹：燒燃；點燃。《初刻拍案驚奇》卷三：「賽兒扶着沈婆回家裏來，吹起燈火，開石匣看時，別無他物，只有抄寫得一本天書。」（《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104) 那裏：何處，哪裏。《古今小說》第三五卷：「殿直道：『既沒人，這三件事物從那裏來？』小娘子道：『我怎知？』」（許少峯編，同前揭書，頁1386。）
- 105) 時：用作語氣間歇之詞，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拜月亭》一【金盞兒】：「怕不問時，權做弟兄；問着後，道做夫妻。」（顧學頌 王學奇，同上揭書，351頁。）
- 106) 了的：同“了得”。懂得。《水滸傳》第三三回：「為首的教頭，雖然了得些刀槍，終不及花榮武藝。」（高文達主編，同前揭書，頁496。）
- 107) 着：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編，

是强盜，有法度¹¹⁰容易隄防。那廝們怕簾子，亮窗裏面把簾子幔¹¹¹上，着釘子釘在三四處。鋸鉞兒¹¹²釘在兩三處，把了吊子¹¹³叩上了，將指頭來¹¹⁴大小的長鐵條兒插在鋸鉞裏。門子關了，腰絛¹¹⁵插的牢，這般隄防時，怎麼得入去？常言道：小心必勝。

【번역】

甲某： 요즘 어찌 이리도 도적들이 많아졌을까?

乙某： 올해는 날이 가물어서 곡식을 거두질 못하여 그래서 도적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甲某： 갈고리 쓰는 도적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성냥¹¹⁶을 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침 뭍은 혀끝으로 적시어 구멍을 내고, 불을 붙여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더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불을 끈

同前揭書，頁2452.)

108) 只是：僅僅是；不過是。

109) 夜貓：雕鴞。又叫大貓頭鷹。

110) 法度：本領；手段。《獨角牛》二白：「娘也，打殺我也！法度利害，禍不是好惹的。」

111) 幔：以布帛制成，遮蔽門窗等用的簾子。此作動詞。

112) 鋸鉞兒：鋸，【集韻】曲勿切，音屈。鋸鉞，鎖鈕。【正字通】按，鋸鉞，一作“屈膝”，“屈戌”。…張伯雨有一器是香爐，蓋有鎖者。屈戌，乃受鎖之搭連卷口也。（《康熙字典》，臺灣文化圖書公司，1975年）。「鋸鉞，屈戌。鎖鈕，鎖鼻子（《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13) 了吊子：搭扣。《龍圖耳錄》第三回：「(包頭)正在凝神，忽聽門外了吊克嚇一聲，彷彿吹削的一般，開門處，進來一人。」(許少峯 編，同前揭書，頁1159.)

114) 來：約計之詞，猶左右、上下。《初刻拍案驚奇》：「然後討飯。飯到，又吃了十來碗。」

115) 腰絛：應是“鑰栓”。鑰，門下上貫橫門、下插入地的直木或直鐵棍。栓，器物上可以開關的機件。（《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按，栓，此作“門栓”。門栓，門門的短橫木(也有鐵制的)。

116) 原文의 ‘取燈兒’은 불을 붙이는 성냥을 말함이다. 앞의 注 101)번의 내용을 보면 ‘取燈兒’은 지금의 ‘성냥’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성냥’이라는 낱말은 옛말 “석류황(출처: 언해대산집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서는 요즘의 성냥과 유사한 인광노(引光奴)라는 것이 있었는데 ‘夾註’에서도 ‘引光奴’라는 명칭을 볼 수 있다. 다음은 注 101)번 【夾註】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함으로 이에 해석을 하였다: 「南村輟耕錄’에 의하면 杭州 사 람들은 소나무를 종이처럼 얇게 조각을 내어, 유향을 녹여 나무 끝에 바른 것을 ‘發燭’ 또는 ‘焠兒’이라고 부른다. ‘淸異錄’에 의하면 밤에 급한 일이 생길 경우 불을 빨리 붙일 수 없어 고생하였다. 이에 삼나무를 쪼개 유향을 발라 불과 닿으면 빠르게 불을 얻을 수가 있어, 이를 ‘引光奴’라 하였다. 오늘날의 ‘取燈兒’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다음 햇대 위의 물건이든 껌짝 위에 물건이든 가리지 않고 갈고리로 꼬집어내어 가져갑니다.

乙某: 그놈들은 밤도둑들이지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강도들은 어니어서, 쉽게 막을 방도가 있습니다. 그놈들은 발을 싫어합니다. 밖에 나있는 창문에 발을 드리우고, 서 너 군데 못을 박아 박습니다. 그리고 배목¹¹⁷⁾을 두세 군데 박고, 걸쇠(고리 쇠)를 걸고, 손가락 굵기 만한 긴 쇠막대로 배목에 꽂습니다. 문을 잠그고, 빗장¹¹⁸⁾을 단단히 꽂아 둡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속담에 ‘小心必勝(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60話 角頭店裏買段去裏

你那裏去? 角頭¹¹⁹⁾店裏買段子¹²⁰⁾去裏。咱兩個去來, 買了段子, 貼¹²¹⁾些銅錢, 茶房裏吃茶去來。這們時, 我也與你做伴當閑¹²²⁾看去。這鋪裏有四季花¹²³⁾段子麼? 你要甚麼顏色的? 南京鴉青¹²⁴⁾段子、葱白¹²⁵⁾素¹²⁶⁾通袖¹²⁷⁾膝

- 117) 原文의 ‘鑷鉞’은 ‘자물쇠’ 또는 ‘자물쇠 고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諺解는 ‘빚목(배목)’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배목’은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려 만든 고리 걸쇠」를 말함이다.
- 118) 原文의 ‘腰絛’은 ‘鑰拴’이 맞다. ‘鑰(yao)’과 ‘腰(yao)’는 중국어 발음이 같아서 假借의 글자로 보이고, ‘絛(가는 베)’은 ‘拴’의 誤寫로 보인다. ‘鑰’와 ‘拴’은 각각 위에서 아래로, 가로와 세로로 여닫는 ‘빗장’을 말함이다.
- 119) 角頭: 集市. 元·無名氏《謝金吾》三折白: 「如今朦朧奏過聖人, 將他兩個押赴市曹殺壞了。…來到這角頭上鬧市中。」(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139.) 【夾註】《音義》云: 東南西北往來人烟湊集之處。今按, 角頭即通達達道要會之衝, 備力求直之人坌集之所。然漢俗呼市塵亦曰角頭, 謂販市者必指角頭而去, 故云爾。
- 120) 段子: 緞子. 《水滸傳》二回: 「史進并太公苦留不住, 只得安排一個宴席送行, 托出一盤兩個段子, 一百兩花銀謝師。」(吳士助 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年, 頁262.)
- 121) 貼: 就是“貼錢”. 找還的餘錢. 《水滸傳》二三: 「酒家看了道: “有餘, 還有些貼錢與你.” 武松道: “不要你貼錢, 只將酒來篩.”」(李法白、劉鏡芙 編著, 《水滸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9年, 頁196.) 按: “貼六箇錢饋我”, 就是“找給我六箇錢”之意。
- 122) 閑: 隨便. 元·關漢卿《謝天香》第二折: 「他則是一時間帶酒閑支謊, 量妾身本開封府階下承應輩, 怎做的柳耆卿心上謝天香。」(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005.)

欄¹²⁸) 段子有麼? 牙子¹²⁹) 道都有。干¹³⁰) 你甚麼事? 沒你時怕¹³¹) 買不成? 賣段子的道, 你官人們和那弟子孩兒¹³²) 說甚麼閑話¹³³), 要時請下馬來看。我說與你, 休哄弄¹³⁴) 我。你放心, 小人不。小廝, 將那廚¹³⁵) 裏夾板來, 鮮與官人高的。這段子多小賣? 牙青四季花六兩銀子一匹, 葱白膝欄四兩銀子一匹。你休胡討價錢。討的是虛, 還¹³⁶) 的是實。官人你與多少便了¹³⁷)? 這段子中中¹³⁸) 的, 你再饋我絕高的。我沒再高的了, 官人十分¹³⁹) 休駁彈¹⁴⁰)。怕甚麼¹⁴¹)? 駁彈的是買

123) 四季花: 月季。又稱“月季花”、“月月紅”。也叫“長春花”。

124) 鴉青: 鴉羽的顏色。即黑而帶有紫綠光的顏色。

125) 葱白: 淡青色。《說文·馬部》“驄, 馬青白禿毛也”。清 段玉裁注: “白毛與青毛相閑則爲淺青, 俗所謂葱白色。”《兒女英雄傳》第六回: “那馬棚裏卸着一輛糙席篷子大車; 一頭黃牛, 一匹葱白叫驢, 都在空槽邊拴着。”

126) 素: 素緞之省。‘素緞’, 指不提花的緞紋織物。

127) 通袖: 長袖。《金瓶梅詞話》第四十回: “到次日, 西文慶衙門中回來, 開了箱櫃, 打開出南邊織造的夾板羅裁尺頭來。使小廝叫將趙裁來, 每人做件粧花通袖袍兒, 一套遍地錦衣服, 一套粧花衣服。”

128) 膝欄: 應是“膝襪”。膝襪, 蟒服。明代的一種制服。《明史·輿服志三》: “永樂以後, 宦官在帝左右, 必蟒服……膝襪, 亦如曳撒, 上有蟒補, 當膝處橫織細雲蟒, 蓋南郊及山陵屢從便於乘馬也。”

129) 牙子: 又叫“牙行”。買賣雙方的居間介紹者, 經紀人。《水滸傳》六五回: “我生在潯陽江邊, 長在小孤山下, 作賣魚牙子, 誰不認得!” (劉堅 江藍生 主編, 《宋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9年, 頁312。)

130) 干: 管, 關。元·李文蔚《燕青博魚》第一折: “你出去也, 我關上這門。凍殺我殺, 不干事也。”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 2008年, 頁603。

131) 怕: 難道, 莫非。《水滸全傳》第六二回: “你那瞞心昧己的勾當, 怕我不知! 你又占了他家私, 謀了他老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393。)

132) 弟子孩兒: 弟子, 宋元時也用以稱妓女。弟子孩兒, 罵人語: 種雜, 婊子養的。《水滸全傳》第104回: “驢牛射的狗弟子孩兒, 恁般膽大, 怎敢跌我妹子!”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432。)

133) 閑話: 猶廢話, 胡說。明·沈采《千金記》第八出: “哇! 我兩個是下人, 你是上人? 不要閑話, 快快鑽過去!”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006。)

134) 哄弄: 戲弄, 撮弄。《西游補》第十六回: “(鯨魚精)一邊纏住大聖, 一邊假做小和尚模樣哄弄唐僧。”(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754。)

135) 廚: 櫥, 櫃子。《南史·陸澄傳》: “王儉戲之曰: ‘陸公, 書廚也。’”(《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36) 還: 支付, 付給。《水滸傳》九回: “兩個公人那裏敢再開口, 吃了些酒肉, 收拾了行李, 還了酒錢, 出離了村店。”(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315。)

137) 便了: 猶就是。多用于句末。

138) 中中: 平平常常, 一般。《金瓶梅詞話》第六一回: “我前日在宅裏, 見那一位郁大姐唱的也中中的, 還不如這申二姐唱的好。”(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10。)

139) 十分: 實在, 確實。《金瓶梅詞話》第三十回: “一個是老太婆, 一個是小老婆, 明日兩個對

主。我是老實價錢，這牙青的五兩銀子，葱白的三兩銀子如何？那般時爭¹⁴²⁾着遠裏¹⁴³⁾。咱們這裏沒牙子，省¹⁴⁴⁾些牙錢不好？罷，罷，將銀子來，小賣了五錢銀。明日來管¹⁴⁵⁾迴換¹⁴⁶⁾？不妨事¹⁴⁷⁾，管着來迴。

【번역】

甲某： 어딜 가는가?

乙某： 저작거리 한 가게에 비단을 사러 가는데, 같이 가지지요. 비단을 사고 잔돈이 남으면 다방(茶房)으로 차나 마시러 가세나.

甲某： 그렇다면 내 자네와 벗 삼아 구경이나 가야겠군.

(비단 가게 앞에서)

乙某： 이 가게에 월계꽃¹⁴⁸⁾ 무늬 비단이 있습니까?

商人： 무슨 색을 원하십니까?

乙某： 남경(南京)산 진청색(鴉青) 비단과 긴소매 스란(膝襪)¹⁴⁹⁾을 만들 무늬

養, 十分養不出來, 零碎出來也罷。」(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85.)

140) 駁彈：彈劾。唐 張鷟《朝野僉載》第四卷：「黜陟失所，選補傷殘；小人在位，君子駁彈。」(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29.)

141) 怕甚麼：有何不可。又作“怕做甚麼”。關漢卿《哭存孝》四 李克用白：「息婦兒也，你也辭我一辭去，怕做甚麼？」

142) 爭：猶差。意爲“相差、不足”也。《西廂記》四本四折：「我想那廢寢忘餐，香消玉減，花開花謝，猶自較爭些。」此爭與較聯用也；較亦差也。(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頁247.)

143) 裏：猶助詞“呢”。

144) 省：節制，減少。

145) 管：准保，定能。管保。

146) 迴換：改易；變換。宋 鮑照《擬行路難》詩之八：「初送我君出戶時，何言淹留節迴換。」若作“回換”。唐·封演《封氏聞見記·貢舉》：「元宗欲與改官，拜謝而請曰：“臣女婿王如泚見應進士舉，伏望聖恩回換，與一及第。上許之，付札部宣與及第。」

147) 不妨事：沒關係，不成問題。《水滸全傳》第十一回：「林沖被打，掙扎不得，只叫道：“不妨事，我有分辦處。”(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0.)

148) 原文의 ‘四季花’는 ‘月季’, ‘月季花’, ‘월계꽃’이라고도 한다. (Rosa chinensis) 장미과에 딸린 떨기나무, 키는 1~1.5cm. 줄기에 가시가 있으며 잎은 깃꼴겹잎. 잔잎은 넓은 달걀 모양 또는 길둥근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음. 초여름에 붉거나 희누런 홑꽃 또는 겹꽃이 가지 끝에 한 송이씩 또는 빙상 꽃차례로 피고 거의 둥근 이과(梨果)는 가을에 발갈게 익음.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 남중부에 분포함.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가 없는 담청색 비단도 있습니까?¹⁵⁰⁾

(거간이 끼어들다)

居間: 모두 다 있습니다요.

乙某: 당신은 뭘 상관이요? 당신이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요?

商人: 손님! 저 얼빠진 작자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말에서 내려오셔서 구경하십시오.

乙某: 내 말해두지만, 나한테 쓸데없는 장난하지 마시요!

商人: 손님!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어찌 감히 그리 하겠습니까? 애야, 궤짝에서 통비단(필짜로 있는 비단)을¹⁵¹⁾ 가져다가 손님에게 질 좋은 비단을 보여 드려라!

149) 原文의 '膝襪'에 대해서 사전에는 「치맛단에 금박을 박아 선을 두른 것. 옛날 궁중이나 반가(班家)의 부녀자들의 예장용 치마에 장식했던 것으로, 폭은 약 20cm이며, 용·봉따위의 무늬를 놓는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조선조에 이르러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석 128)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明代에 이르러 朝廷의 宦官들이 '蟒服'을 입었는데, 이것을 '膝襪'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元典章》이나 《明史·輿服志》의 기록을 보면 '膝襪'이 임금의 곤룡포(袞袍)에서 변형되어 민간에게까지 흘러들었음을 볼 수 있다. (明·沈德符《萬曆野獲編·補遺》卷二說:「蟒衣如像龍之服, 與至尊所御袍相肖, 但減一爪耳。」《元典章》卷五十八記大德元年(公元1297年), 不花帖木耳奏:「街市賣的緞子似皇上御穿的一般, 用大龍, 只少一個爪子。四個爪子的賣者有着呵。」《明史·輿服志》:「宦官在帝左右必蟒服, ……綉蟒于左右, 繫以鸞帶。……次則飛魚 ……。單蟒面皆斜向, 坐蟒則正向, 尤貴。又有膝襪者, 亦如曳撒(据《碎金》稱作曳撒), 上有蟒補, 當膝處橫織細雲蟒, 蓋南郊及山陵扈從, 便于乘馬也。或召對燕見, 君臣皆不用袍而用此。但蟒有五爪四爪之分, 襪有紅、黃之別耳。」

150) 原文의 '素'는 '素段(緞)'의 의미로, '素段'은 무늬가 없는 비단을 말함이다.

151) 原文 '夾板'에 대해 《새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 1983년)에는 '중국에서 책이나 짐에 끼어 두는 널빤지'라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 두 장의 널빤지를 써서 그 사이에 書冊 등을 넣고 끈으로 묶어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食貨金瓶梅(作者: 侯會)〉라는 글에서 '夾板'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다: 「책(金瓶梅)의 44회에 西門慶이 妻妾들에게 옷감을 끊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은 喬大戶 자식과 혼사 때 자신의 妻妾들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西門慶이 관아에서 돌아와 궤짝을 열어 남쪽에서 잔 널빤지로 묶어진 비단옷감(필짜로 되어 있는 옷감을 가리킴)을 꺼낸다. 奴僕를 시켜 趙裁를 오도록 했다. … (趙裁는) 탁자에 양단자를 깔더니 가위와 자를 꺼내 먼저 月娘이 입을 옷을 재단한다. (書中第四十回, 還描述了西門慶給妻妾裁制新衣的大場面, 那是跟喬大戶結兒女親家時, 爲衆妻妾參加宴會豫備的。西門慶衙門中回來, 開了箱櫃, 打開出南邊織造的夾板羅緞尺頭(指成匹的衣料)來, 使小廝叫將趙裁來……桌上鋪着氈條, 取出剪尺來, 先裁月娘的) -摘自 百度-」原文의 문맥과 윗글의 내용을 미루어보아 '夾板'은 통비단의 포장 상자를 말함으로 보인다.

乙某: 이 비단은 얼마입니까?

商人: 진청색(鴉靑) 월계꽃 무늬 비단은 한 필에 銀子 여섯 냥(兩)이고, 스란(膝襪)을 만들 담청색 비단은 한 필에 銀子 녀 냥(兩)입니다.

乙某: 함부로 그렇게 가격을 부르지 마시오.

商人: '부르는 가격은 虛數이고, 받는 가격이 진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乙某: 이 비단은 그저 일반적인 것이고, 최상품으로 가져와 보시오.

商人: 우리는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손님께서는 더 이상 트집을 잡으려하지 마십시오.¹⁵²⁾

乙某: 안될 것은 또 무엇이요?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살 사람인 것입니다.¹⁵³⁾ 난 솔직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진청색 비단은 銀子 다섯 냥이고 이 하얀 것은 銀子 석 냥이면 어떻겠소?

商人: 그렇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乙某: 우리는 지금 거간꾼이 없으니 중개료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商人: 그럼시다! 銀子나 주시오, 銀子 5전(錢)은 싸게 판 것입니다.

乙某: 내일 오더라도 틀림없이 다른 물건으로 바꾸거나 물릴 수 있겠지요?

商人: 물론입니다, 틀림없이 물려드리겠습니다.

第61話 你寫與我房契

哥, 你寫與我房契. 你搬那裏去? 我羊市裏¹⁵⁴⁾前頭, 磚塔衚衕¹⁵⁵⁾裏, 賃一

152) 原文의 '駁彈'은 '탄핵하다', '책망하다'의 의미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휘로는 '褒彈', '包彈', '匏彈' 등이 있다.

153) 原文 '駁彈的是買主'의 비슷한 '匏彈的是買的'라는 말이 《原本老乞大》第76話 本文中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진정 살 사람이야말로 따지고 시비를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154) 裏: 此作'底', '的'. 裏, 語助詞, 猶理也; 呢也; 亦猶底也. 周密《掃花遊》詞: 「怕裏流芳暗

處房子來，嫌窄，今日早起¹⁵⁶表褙衙¹⁵⁷裏賃一所房子。這房契寫了，你聽我念：“京都在城¹⁵⁸黃華坊¹⁵⁹住人朱玉，隨¹⁶⁰問¹⁶¹到本坊住人沈元處¹⁶²，賃到房子一所。正房¹⁶³幾間，西房幾間，東房幾間，暖閣¹⁶⁴幾間，花房¹⁶⁵幾間，捲蓬¹⁶⁶幾間，佛堂¹⁶⁷一間，庫房幾間，馬房幾間，廚房幾間，中門一間，客位¹⁶⁸

水，啼烟細雨帶愁去。」怕裏猶云怕底，亦猶云怕的是。又《露花》詞：「選歌試舞，連宵戀醉珍叢。怕裏早鶯啼醒，問杏誰點愁紅。」此猶云怕的是被鶯啼醒也。（張相，《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頁78。）

- 155) 磚塔衙：磚塔衙因衙東口（現通西四南大街丁字路口的西南側）的磚塔而得名。是北京市歷史最悠久的衙之一，也是目前北京遭到破壞較少，風貌保存較好的衙之一。我們從元人李好古的《張生煮海》雜劇第一折裏可以知道此“磚塔衙”元時已有之。劇中張生與龍女定情後，家童湊趣，與龍女的侍女梅香調情。「家童云：“梅香姐，你與我些兒什麼信物！”侍女云：“我與你把破蒲扇，拿去家裏扇煤火去！”家童云：“我到那裏尋你？”侍女云：“你去那羊市角頭磚塔衙總鋪門前來尋我。”」足證元大都城裏，已有磚塔衙。（摘自《百度百科》“磚塔衙”一欄。）磚塔衙，在北京西四南邊，甘石橋之北，因萬松老人磚塔得名。萬松即萬松行秀，為金元間著名高僧，八十一歲圓寂後，其遺體被秘葬此塔中，詳見《帝京景物記》中《萬松老人塔》一文。（楊棟，元曲研究失落的兩部珍貴域外文獻——對《朴通事諺解》與《老乞大諺解》的幾點認識，《山東科技大學學報》2000年，第4期。）
- 156) 早起：早晨。元刻《魔合羅》一白：「早起天晴，如今陟恁的好雨！」（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408。）
- 157) 表褙衙：褙衙衙在崇文門內，明張爵《京師五城坊巷胡同集》一書已有記載，隸屬明時坊。褙衙衙明清時東通城牆，西達崇文門內大街，中跨鬧市口。民國年間褙衙衙以鬧市口為界，始分東西。按，褙衙，亦作“表背”、“裝背”。即“裝褙”。
- 158) 在城：本城。指所居的城市。《清平山堂話本·錯認尸》：「在城聚安橋北首觀音庵有一個商人，姓喬名俊，字彥杰，祖貫錢塘人。」（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15。）
- 159) 黃華坊：北京城，東面的“朝陽門”和“東直門”之內有五坊：明時坊、黃華坊、思城坊、南居賢坊、北居賢坊。
- 160) 隨：隨即，就此。《紅樓夢》第六回：「劉姥姥聽了謝過，隨帶了板兒繞到後門上。」（許少峯 編，同前揭書，頁1775。）
- 161) 問：打聽。關漢卿《竇娥冤》四：「竇天章 白：‘老夫自得官之後，使人往楚州山陽郡問蔡婆婆家，他隣里街坊道，自當年蔡婆婆不知搬在那裏去了，至今音信皆無。’」（藍立莫 編著，同前揭書，頁300。）
- 162) 處：用于詞尾，表示地點，所在。
- 163) 正房：在住宅的院落中，位置處於正中（坐北朝南）的房子，稱為正房。與廂房相對。
- 164) 暖閣：① 與大屋子隔開而又相通連的小房間，可設爐取暖。② 泛指設爐取暖的小閣。老舍《正紅旗下》十一：「酒席設在離花廳不遠的一個圓亭裏。它原來是亭子，後來才安上玻璃窗，改成暖閣。」③ 舊日官署大堂設案之閣。（摘自 百度）
- 165) 花房：舊式住宅中大廳以外的客廳。多建在跨院或花園中。《白雪遺音·玉蜻蜓·問卜》：「昨日娘娘已曾吩咐在花廳豫備香案，就在花廳問卜。」（摘自 百度）
- 166) 捲蓬：疑是“卷棚”。卷棚，中國古建築中的一種形式。其屋面雙坡，沒有明顯的正脊，即前後坡相接處不用脊而砌成弧形曲面。卷棚頂建築由於沒有正脊，因此沒有吻獸。（摘自 搜狗百科）【夾註】「音義」云：비 우릿 집이니 므러 업슨 지를 날오더 捲蓬。
- 167) 佛堂：【夾註】漢人酷好釋教，家設一堂，或安金像，或掛佛畫，焚香頂禮，朝夕不懈。

幾間, 鋪面周圍¹⁶⁹)幾十間, 門、窗、炕¹⁷⁰)、壁俱全, 井一眼, 空地幾畝。兩言議定, 賃房錢每月二兩, 按月送納。如至日無錢送納, 將賃房人家內應有直錢物件, 准折¹⁷¹)無詞。恐後無凭, 故立¹⁷²)此賃房文字¹⁷³)爲用。某年、月、日, 賃房人某, 代保人¹⁷⁴)某, 引進人某。

【번역】

甲某: 형님! 형님께서 저에게 짐계약서 한 장만 써주세요.

乙某: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가?

甲某: 저는 지금 羊市의 앞쪽, 磚塔衙에서 집 한 채를 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좀 좁아서, 오늘 아침나절에 表褙衙에서 집 한 채를 세 얻었습니다.

乙某: 여기 짐계약서를 다 썼는데, 내 읽을 것이니 들어보시게나.

경도(京都) 황화방(黃華坊)사는 사람 주옥(朱玉)은 本坊에 사는 심원(沈元)이 집을 세놓는다는 수소문 끝에¹⁷⁵), 집 한 채를 세 얻었다. 正

168) 客位: 指客廳。《金瓶梅詞話》第六九回:「這衆人只得回來, 到王招宣 府宅內, 選入他客位里坐下。」

169) 鋪面周圍: 鋪面, “店面; 店堂”。【夾註】漢人造屋於大街之間者, 向街周遭必設空屋, 聽令坐賈賃居爲市, 按月受直。

170) 炕: 北方人家的一種睡具。用土坯或磚頭砌成, 上爲平面, 下留烟道回旋連接烟囱, 炕前搭爐臺, 生火通烟以取暖。

171) 准折: 抵償, 折算。《西遊記》第二回:「我雖少腮, 却比人多個素袋, 亦可准折過也。」(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47.)

172) 立: 簽訂, 訂立。《三國演義》四九回:「孔明曰:‘倘若放了時, 却如何?’雲長曰:‘願依軍法。’孔明曰:‘如此, 立下文書。’」(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39.)

173) 文字: 文書, 公文。《三國志平話》卷下:「前後一月, 求救文字, 三番皆被劉封納殺不申。」(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825.)

174) 保人: 擔保人。元·缺名《鴛鴦被》楔子:「既是這等呵, 借與他一個銀子, 着他立一紙文書, 你就做保人。」(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40.) 【夾註】『音義』云: 爲人保托受債之人。

175) 原文 ‘京都在城黃華坊住人朱玉, 隨問到本坊住人沈元處, 賃到房子一所’一句에 대한 諺解는 다음과 같다: ‘黃華坊에서 사는 사람 朱玉이 隨問하여 本坊에 사는 사람 沈元 의 손더가 집 할 곳을 세내되’이다. 위와 비슷한 句로는 ‘第44話」隨問到本都在城某坊住某官人處賣與(수소문하여 大都에 살고 있는 아무 마을 아무 관인 집에 팔기로 하였다)가 그

房 몇 칸, 西房 몇 칸과 東房 몇 칸, 暖閣 몇 칸, 花房 몇 칸, 무량각(卷棚)¹⁷⁶ 몇 칸, 佛堂 한 칸, 庫房 몇 칸, 馬房 몇 칸, 廚房 몇 칸, 中門 하나, 사랑방 몇 칸, 점방 몇 십 칸에 門, 窓, 炕(구들)¹⁷⁷, 담벼락 등이 다 온전하고, 우물 하나, 공터 몇 무(畝)에 대해 쌍방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집세는 매 달 銀 두 냥(兩)으로, 매달 지불한다. 만일 날짜가 되어도 지불할 돈이 없다면, 세입자 집에 있는 값이 나가는 물건으로 대체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후에 증빙서류를 삼고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某年 月 日

세입자 아무개

보증인 아무개

소개인 아무개

것이다. 즉 가난한 집안의 아이를 노비를 사들이는 과정을 그린 노비 매매문서인데, 여기 '~處' 뒤에 '賣與'라는 動詞가 있어, '아이를 팔았다'라고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本文의 '沈元處' 뒤에 어떠한 詞語가 없기 때문에 「隨問到本坊住人沈元處」는 '本坊에 사는 沈元의 거처를 수소문하였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第44話에서처럼 '沈元處' 뒤에 '賃與(一所房子)'와 같은 動詞(句)가 생략 또는 빠졌다고 보고, 이에 뒤의 '賃到房子一所'와 연계해서 「本坊에 사는 심원(沈元)이 집을 세놓는다는 수소문 끝에, 집 한 채를 세 얻었다」라고 번역을 하였다.

176) 原文 '捲蓬'에 대한 諺解는 '무량각'이다. '捲蓬'은 '卷棚'의 通假字로 보인다. 위의 註 166) 번에서처럼 무량각양식이란 대들보가 없는 지붕의 양식이다. 무량각양식은 대들보도 없지만, 더 특이한 점으로 용마루장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元나라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후 中國에서 주로 정원의 건물이나, 사당의 양식으로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조선시기 궁궐의 지붕양식의 하나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177) '구들' 또는 '온돌'이라는 명칭은 현재 우리의 전통가옥에서 볼 수 있는 가옥 즉 방바닥 전체를 따듯하게 하는 난방방법을 말하는 우리말이다. 강(炕, kang)은 중국 북쪽지역에서 쓰이는 가옥의 난방의 한 방식을 말한다. 앞의 註 170)번에서처럼, 실내의 한쪽에 벽돌 등을 쌓아 속이 빈 침대 형태의 구들을 만들어 火氣를 통하도록 열을 얻는 방식을 말함인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炕)' 대신 '구들'로 번역하였다.

第62話 房子都漏

每日下雨，房子都¹⁷⁸⁾漏。這的有些法度。房上生出那草，養¹⁷⁹⁾住那水，好生流不下來，只越漏了。你兩個小廝¹⁸⁰⁾慢慢的上去，把那房上草來一根一根家¹⁸¹⁾拔的干淨着¹⁸²⁾。你看那瓦有破的時，換個新的。你慢慢兒走那瓦水潤¹⁸³⁾了，無些力氣，只怕躑¹⁸⁴⁾破了。那瓦有破的麼？多有破的。我不說來，都是你兩個小畜生的勾當。每日家尋空便拿雀兒，把瓦來都躑破了。把這生分¹⁸⁵⁾忤逆呆種殺了有甚麼多處？你來聽我說，十歲年紀了，學裏也不肯去，不學些禮體¹⁸⁶⁾，無些兒尊貴處。可知道¹⁸⁷⁾裏，古人道：家富小兒嬌¹⁸⁸⁾。

【번역】

甲某: 매일 비가 내려서 집에 물이 더욱 셉니다.

乙某: 그건 해결 방도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난 풀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잘 흘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새는 것입니다.

甲某: 네 두 녀석이 가만가만 올라가서 지붕 위에 난 풀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178) 都：加，增。同“多”。

179) 養：留，蓄。《水滸全傳》第十七回：「如今寺裏住持還了俗，養了頭髮，餘者和尙都隨順了。」（許少峯 編，同前揭書，頁2167。）

180) 小廝：此作“男孩，兒童”。元·白仁甫《墻頭馬上》：「自離洛陽，同小姐到長安七年也，得了一雙兒女，小廝叫做端端，女兒喚做重陽。」（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265。）

181) 家：猶“地”。元無名氏《漁樵記》第一折：「此女頗不賢慧，數次家和小生作鬧，小生只得將就，讓他些罷了。」

182) 着：表祈使語氣。又作“者”、“咱”等。關漢卿《玉鏡台》老夫人白：「梅香，綉房中叫小姐來拜哥哥者。」按，與現代漢語的語氣助詞“吧”同。

183) 潤：滋潤，使濕。

184) 躑：踩，踏。關漢卿《緋衣夢》第二折：「則我這綉鞋兒滑呵、可莫不着躑着青苔溜，泥污了底尖，紅染了羅褲口，血浸濕我那襖頭。」（許少峯 編，同前揭書，頁1986。）

185) 生分：忤逆。也作“生忿”。關漢卿《哭存孝》二【梁州】：「俺割股的倒做了生忿，殺爹娘的無徒說他孝順。」（藍立莫 編著，同前揭書，頁246。）

186) 禮體：指禮節；規矩。

187) 可知道：也作“可知”。須知。關漢卿《蝴蝶夢》第一折：「一壁廂嗚嗚可可停着老子，一壁廂眼睜睜送了孩兒。可知道福無重受日，禍有並來時。」（《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88) 嬌：同“驕”。驕橫。

뽑아버려라. 그리고 깨진 기와가 있는지 살펴보고 새것으로 바꾸어라. 기와가 물을 먹어 힘을 받지 못해 깨질지도 모르니 살살 밟아라. 깨진 기와가 있느냐?

丙某: 깨진 것이 많습니다.

甲某: 내 말하지 않았더냐? 이 모두가 다 네 못된 놈들의 짓이다. 날마다 틈만 나면 참새를 잡는다며 기와를 밟아 깨뜨렸으니 말이다. 이 막되 먹은 녀석들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열 살이나 먹었는데 학교도 가려하지 않고, 예의범절도 배우질 못했으니 귀한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乙某: 옛말에 '家富小兒嬌(집안이 넉넉하면 아이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63話 我問你些字樣

我問你些字樣。縫衣裳的縫字怎麼寫? 那的¹⁸⁹不容易, 紐¹⁹⁰絲傍做逢字。那個逢字? 久字底下手字, 着¹⁹¹走之的便是。替代的代字怎麼寫? 代字立人傍做戈字便是。拖字怎的¹⁹²寫? 才手傍做人字下也字便是。床字怎的寫? 冰角裏木字。却字怎麼寫? 去字傍着反耳的便是。劉字怎的寫? 文字傍着刀的便是。錯字怎麼寫? 金傍做昔字便是。宋字怎麼寫? 家頭下木字便是。笠字怎麼寫? 竹字頭下立字。滿字怎麼寫? 點水傍做草頭底下雨字便是。麼字怎麼寫? 那的不容易, 二字下一個ノ, 裏頭一個林字, 做么的便是。待字怎的寫? 雙人傍做寺字便是。思字

189) 那的: 那。關漢卿《拜月亭》四 正旦白:「那的是你有福如我處那!」(藍立莫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186。)

190) 紐: 繫也。

191) 着: 添; 加。《岳陽樓》二【賀新郎】白:「這師父倒會吃!…第三盞吃個杏湯,再着上些乾糧,都飽了半日。」

192) 怎的: 怎樣, 如何。《金瓶梅詞話》第十二回:「爹,你怎的恁沒羞!娘干壞了你的甚麼事兒,你信淫婦言語?」(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30。)

怎麼寫? 那思字, 田字下心字便是。東字怎的寫? 一畫下日字, 一個直老條, 一ノ一\便是。

【번역】

甲某: 자네에게 글자를 물어 보겠네. 옷을 꿰맨다는 ‘봉’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는가?

乙某: 그건 쉽지가 않네. 실사(糸)¹⁹³⁾ 변에 ‘逢’字를 쓴다네.

甲某: 어떤 ‘봉’字인가?

乙某: 오랏 구(久)字 아래에 손 ‘手’字, 그리고 쉬엄쉬엄 갈 착(辵)¹⁹⁴⁾을 보태야 하네.

甲某: 代替한다고 할 때의 ‘代’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代’字는 사람 ‘亻’변의 ‘弋(주살 익)’字를 쓰네.

甲某: ‘拖’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재(扌)방면에 ‘人’字를 쓰고, 아래 ‘也’字가 바로 그 것이네.

甲某: ‘床’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엄호(广)¹⁹⁵⁾ 안에 ‘木’字이네.

甲某: ‘却’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갈 ‘去’字에 병부절(冫)¹⁹⁶⁾을 쓰네.

甲某: ‘劉’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文’字에 칼 ‘刀(刂)’이네.¹⁹⁷⁾

甲某: ‘錯’字는 어떻게 쓰는가?

193) 原文 ‘紐絲’에 대해, 現代漢語에서는 ‘絲字旁, 絞絲旁’이라고 한다.

194) 現代漢語에서도 部首 ‘辵(쉬엄쉬엄 갈 착)’을 ‘走之’라고 한다.

195) 原文 ‘冰角’에 대한 用例나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 現代漢語에서의 ‘广(엄호)’를 ‘广字旁’이라고 한다.

196) 原文은 ‘反耳’이다. 現代중국어에서 ‘陸, 限, 陽’字 등의 부수 ‘阝(언던 부)’를 ‘左耳旁’ 또는 ‘雙耳旁’이라고 하고, ‘邛, 都, 郡’字 등의 부수 ‘阝(고을 읍)’은 ‘反耳旁’ 또는 ‘右耳旁’이라고 부른다. 原文 ‘却’字의 부수 병부절부 ‘冫(ㅂ)’는 ‘單耳旁’이라고 한다.

197) 原文에는 ‘文字傍着刀’는 略字(또는 簡體字) ‘劉’字를 말함이다.

乙某: 쇠'金'에 '뫼'字이네.

甲某: '宋'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갓머리(宀)198) 아래에 나무 '木'이네.

甲某: '笠'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대죽(竹) 아래에 '立'字이네.

甲某: '滿'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삼수변(彳)에 초 두(艸, 卅), 그 아래에 비 우(雨)字네.

甲某: '麼'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그건 쉽지가 않네. 두 '二'자에 삐침 별(ノ)자를 긋고, 안에는 수풀 림(林)자에 '么'를 쓴다네.

甲某: '待'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두인(彳)변에 '寺'字이네.

甲某: '思'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그 '思'字는 '田'자 아래에 '心'자가 바로 그 글자네.

甲某: '東'字는 어떻게 쓰는가?

乙某: 하나 '一' 아래 '日'字를 쓰고, 세로로 세운 막대기(丨)199)에, 삐침(ノ)과 파임(㇇)을 각각 쓰면 된다네.

第64話 你每日做甚麼

我要你莊頭²⁰⁰⁾裏去, 不得工夫, 去不得. 你每日做甚麼? 我每日纔²⁰¹⁾聽明

198) 原文에는 '家頭'에 대해 現代漢語에서는 '寶蓋兒'이라고 한다.

199) 原文 '直老條'의 상세한 의미는 알 수가 없다. 다만 '直'는 '세우다'의 의미를 가지고, '直條'는 '막대기'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길게 늘이는 국수가닥 또는 그러한 음식을 '拉條(子)'라고 한다. 이에 '가닥을 세우다'로 해석하였다.

200) 莊頭: 此作'村莊'.

201) 纔: 猶一也. 晁元禮 《安公子》詞: 「是即是從來好事多磨難; 就中我與你纔相見, 便世間煩惱, 受了千千萬萬。」 纔相見, 猶云一上見也. (張相, 《詩詞曲語辭匯釋》, 中華書局, 1991年, 頁156.) 按, "纔"此作副詞"一"也.

鐘一聲響，便上馬跟官人，直到點燈時分恰²⁰²⁾下馬，幾時得些閑？說的是，你一般爭名奪利的官人，每日馬肚皮²⁰³⁾塵埋三尺，睜着驢眼，跟着假使長²⁰⁴⁾，鑽在²⁰⁵⁾爭前²⁰⁶⁾立的²⁰⁷⁾。夾着那屁眼²⁰⁸⁾，東走西走，不得捻指²⁰⁹⁾歇息，一望²¹⁰⁾成名，那裏肯來我一般村庄人家。我在村裏，稻熟蟹肥魚正美，滿山果子以爲食，堂上掛佛端然坐，亦看樓外滿池荷。你自說村庄無人來訪，我每日臨池樓上，開呈村味。對客飲酒吟詩句，着棋論談能消日。月明紗窗秋夜半，撫琴²¹¹⁾—操²¹²⁾解千愁。若你也到我樓上，一發²¹³⁾忘棄名與利。

【번역】

甲某： 내 자네가 사는 시골에 가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갈수가 없다네.

乙某： 자네는 날마다 무엇을 하는가?

202) 恰：剛剛，恰才。

203) 肚皮：腹部；肚子。

204) 使長：主人，東家。明《殺狗記》第二十出：「好漢姓王名老實，西郊外居住，從來伏侍孫宅使長，至今已過二代。」（許少峯 編，同前揭書，頁1696。）又作“使頭”、“侍長”。蔣禮鴻《敦煌變文字義通釋》：「明人徐渭《南詞敘錄》，曲中常用方言字義條：“使長：金元謂主曰使長。”“使長”這個名稱應該是從“使頭”來的。…嚴敦易注：“使頭，就是使長，宋元時奴婢稱號家主做使長。」（上海古籍出版社，1981年，頁11。）

205) 鑽在：鑽，通“攢”。聚。（《簡明考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79年）攢，(1) 續聚，儲蓄。(2) 加緊，趕辦。通“趕”。(3) 疾馳。形容箭那樣快。（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17。）按，此作“加緊，趕辦”解。在，到。關漢卿《竇娥怨》四 竇天章白：「他隣里街坊道，自當年蔡婆婆不知搬在那裏去了，至今音信皆無」（藍立棠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372。）

206) 爭前：爭，竟相；搶先。爭前，猶“搶前”。

207) 立的：即“立地”。立着，站着。

208) 屁眼：肛門的俗稱。

209) 捻指：猶彈指。形容時間過得很快。

210) 一望：指目力所及的距離。亦泛指較近的距離。

211) 撫琴：‘撫’，輕輕地按着。撫琴即“彈琴”。

212) 操：【夾註】操，去聲，曲名。劉向別錄曰：其道閉塞，其悲愁而作者，名其曲曰操。言遇災害，不失其操也。

213) 一發：索性，乾脆。關漢卿《金線池》四 末白：「那杜蕊娘許嫁您兄弟了，只望哥哥一發連這公罪也饒了罷！」（藍立棠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345。）

甲某: 난 날마다 아침을 알리는 명종(明鐘)이 울리면 바로 말을 타고 상관(214)을 따라다니다가 저녁 불을 켤 때가 되서야 겨우 말에서 내리니, 언제 잠을 낼 수가 있겠는가?

乙某: 맞는 말일세. 자네처럼 명예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말뺏가죽에는 흙먼지로 덕지덕지하고, 나귀와 같은 눈을 부릅뜨고 시답잖은 주인을 따라다니고, 짹짜게 끼어들어가 앞에 조아리며 서있거나, 똥구멍을 쪼이면서(215)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단숨에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이 어찌 우리 같은 시골에 오려고 하겠는가? 우리 이곳 시골은, 벼가 익어가고 물고기들이 살이 오르고, 들녘에는 과일이 풍성하다네. 대청위에 부처님(216)을 모셔 놓고 단정히 앉아 묵상도 하고, 또한 누각에 나가 연못에 가득 핀 연꽃을 바라보기도 한다네. 자네는 시골에 찾아오는 이가 없다고 하지만 난 날마다 연못과 누각에 올라, 시골의 운치를 즐기고(217),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바둑을 두고 담소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네. 달이 창을 비추는 가을밤에는 거문고 한 자락으로 온갖 시름을 푼다네. 자네도 내 이곳 누각으로 온다면 세속의 욕심을 단숨에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일세.

214) 本文 제65화에서는 ‘官人’이라는 단어는 모두 두 차례를 볼 수 있다. ‘官人’에 대한 近代漢語詞典에서의 해석은 (1) 벼슬아치(官府的人) (2) 신분을 갖춘 남자의 존칭(對有身分的男子的敬稱) (3) 남편에 대한 아내의 호칭(妻子稱丈夫) (4) 하인이 상전에 대한 존칭(奴僕對男主人的尊稱) 등이다. 이에 문맥에 따라 첫 번째 ‘官人’을 계급이 윗자리인 ‘상관(上官)’으로 번역하였고, 뒤의 ‘官人’은 자신의 벼를 높이어 부른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215) 原文 ‘夾着那屁眼’에 대한 언해는 ‘밧굽글 끼고(밀구멍 끼고)’이다.

216) 原文은 ‘掛佛’이다. ‘掛佛’은 특별한 법회나 의식을 할 때 쾌도처럼 만들어 걸어두는 대형 불화를 괘불(掛佛)이라 한다.

217) 原文의 ‘開望’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언해에서도 ‘村味를 開望호고’로 되어 있고, 改修本이라고 할 수 있는 《朴通事新釋諺解》本에서는 삭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앞뒤의 문맥을 보고 「開望村味」一句를 ‘시골의 운치를 즐긴다’로 해석하였다.

第65話 這客位收拾的好不整齊

這客位²¹⁸收拾的好不整齊。洒些水，將茗帚²¹⁹來掃的乾淨着。將花氈來底下鋪一條，炕上鋪着青錦褥子。一周遭²²⁰放幾把交椅，將幾個磨果²²¹釘子來，釘子在這壁子上，掛幾軸²²²畫兒。那中柱上釘一個釘子，掛十八學士²²³大畫。將鏤金²²⁴香爐來，燒些餅子香。那書案上的各樣書冊，堆的乾淨²²⁵着。這般收拾的整齊時不好那？來的客人們也道我精細。古人道：家齊而後國治。

【번역】

매장(賣場)이 정돈되지 못하고 어수선하다. 물 좀 뿌리고 빗자루를 가져다 깨끗하게 쓸어라. 화전(花氈)²²⁶을 가져다 바닥에 짝 깔고, 구들에는 푸른색의 비단 깔개를 깔고, 교의(交椅)를 가져다 매장 곳곳에 배치해 두어라. 둥근 머리 못²²⁷을 가져다가 이쪽 벽에다 치고, 그림을 몇 폭을 걸고, 가운데

218) 客位：商店店堂，即接待客人的鋪位。《水滸全傳》三六回：「李立連忙叫了火家，已都歸來了，便把公人扛出前面客位裏來，把解藥灌將下去，救得兩個公人起來。」(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638。)

219) 茗帚：即“掃帚”。‘茗’字本作‘芳’。蘆葦的花。茗秆可爲帚。【夾註】『周禮』‘桃荈’鄭云：荈，茗筍也。今按，茗乃凌霄花也，茗帚之茗，作‘芳’是。

220) 一周遭：四周圍，團團一圍。《水滸全傳》第七回：「又過了兩三重門，到一個去處，一周遭都是綠欄杆。」(許少峯 編，同前揭書，頁2213。)

221) 磨果：應是“磨菇”。【夾註】即香蕈也。표고. 釘形似之，故因名焉。

222) 軸：量詞。用于 纏在軸上的線以及裝袂帶軸子的字畫。如：一軸山水畫。

223) 十八學士：【夾註】唐太宗秦王時，開館延文學之士，杜如晦、房玄齡、虞世南、褚遂亮、姚思廉、李玄道、蔡允恭、薛元敬、顏相時、蘇勣、于志寧、蘇世長、薛收、李守素、陸德明、孔穎達、蓋文達、許敬宗爲文學館學士，分爲三番，更日直宿。秦王暇日，至館中討論文籍，使閣立本圖像，褚亮爲贊。得與其還者，世謂之登瀛洲。

224) 鏤金：雕鏤物體，中間嵌金。

225) 乾淨：此作“齊整”，“周正”。

226) 原文‘花氈’은 꽃무늬를 넣은 양탄자를 말함이다.

227) 原文‘磨果’에 대해 ‘夾註’(위의 주 221번)에서는 ‘버섯(香蕈)’이라는 설명과 함께 ‘표고’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고’는 現代漢語에서도 ‘磨菇’라고 쓰인다. ‘磨果’는 ‘磨菇’의 通假字이다. ‘磨果釘子’는 ‘夾註’에서의 ‘못’의 모양이 표고버섯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하였다. 설명처럼, 머리가 둥글고 큰 모양을 한 장식용 못을 말하므로 보인다.

기둥에는 못을 하나 박아 실패학사(十八學士) 큰 그림을 걸어라. 아름답게 상감(象嵌)을 한 향로를 가져다 향을 피우고, 책장에는 각종 서책들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아라.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은가? 오시는 손님들은 우리를 세심하고 꼼꼼하다고 칭찬을 할 것이다. 옛말에 「家齊而後國治(집이 다스려진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第66話 你的月日滿了不會?

同知²²⁸哥²²⁹, 你的月日滿了不會²³⁰? 這五月裏²³¹滿了, 却早²³²滿三十個月。替的官人有麼? 有了, 守²³³我半年來, 五月初頭禮上²³⁴了也。解由²³⁵得了不會? 別沒不了²³⁶的事件, 又沒過犯²³⁷, 爲甚麼不得? 便是²³⁸這般, 那幾日你却不到首領官²³⁹署²⁴⁰了卷, 廳上不會押²⁴¹裏。是大前日個衙門

228) 同知: 【夾註】都督同知從一品, 指揮同知從二品, 留守司同知, 各衛同知俱從三品。

229) 哥: 凡年齡相近男子的互相尊稱以及對同父母、同宗族或親戚中的兄丈, 皆相習以“哥哥”呼之。《水滸傳》二八回:「宋江道:哥哥是山寨之主,不可輕動。」…現在仍爲兄的通稱。(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394。)

230) 不會:與現代漢語“沒有”同。放在句末構成是非疑問句。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沒有”用作准句末助詞以前,用的是“不會”。例如:“那寄書的人去了不會?”(救風塵2)“沒有”也用于完成或過去的場合。這種用法出現于明代。例如:“你灌了他些姜湯兒沒有?(金19)”(北京大學出版社,1987年,頁363。)

231) 裏:“裏”在此作表示時間的助詞。《董西廂》卷一:「病裏逢春,四海無家,一身寄客。」

232) 却早:早已,已是。《西廂記》第三本二折:「恨殺魯陽食戰,不教紅日西沉!呀,却早倒西也。再等一等咱。」(許少峯 編,同前揭書,頁1563。)

233) 守:陪伴,偕同。

234) 上:到任;就職。如:上任;上官(受命上任);上台。

235) 解由:宋·元時官吏調任時的證明文書。《元典章·吏部三·聖政一》:「所在親民長官…任滿之日,於解由內明注此年農桑勤惰,赴部照勘。」【夾註】吏學指南云:考滿織除曰解,歷其殿最曰由。質問云:是僭差的官人三年一替換,滿日討了文書回家,其文書,方言謂之“解由”。

236) 不了:沒個結局。

237) 過犯:過失,錯誤。

238) 便是:正是。《水滸全傳》第五八回:「李立道:山上寨中,都是大王住處,你如何去得?孔亮道:便是要尋宋大王。」(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6。)

239) 首領官:元朝廷各機構掾屬經歷、知事、主事等通稱首領官。【夾註】今宗人府經歷爲首領官、六部主事爲首領官之類,然未詳取義。但各衙門有首領官,如有司之任,主出納一司公

令史²⁴²⁾送的來了, 得也得了。你常選官²⁴³⁾, 只是²⁴⁴⁾一步高如一步除將去, 我一般雜識²⁴⁵⁾人家, 滿了一任時, 急且²⁴⁶⁾幾時又得除? 休那般道, 你高官裏轉²⁴⁷⁾除的有, 愁甚麼? 常言道: “命來鐵也爭光, 運去黃金失色”。

【번역】

甲某: 형장(兄丈)의 임기는 다 되셨습니까?

同知: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벌써 30개월이 되었습니다.

甲某: 대체될 관원은 있습니까?

同知: 있습니다. 저하고 반년을 함께하였고, 5월초에 부임하였습니다.²⁴⁸⁾

甲某: 해유(解由)²⁴⁹⁾는 받으셨습니까?

同知: 종결짓지 못한 사건(업무)도 없고, 과오 또한 없는데,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甲某: 일이 이렇게 진행되셨는데, 몇 일전 '위의 首領官은 서명을 하였지만 상

事。

240) 署: 簽名, 簽署。

241) 押: 簽署。

242) 令史: 官名。宋、元等朝의 台、省、院、部均設令史, 皆爲低級辦事吏員。

243) 常選: 古代定期選舉官吏의 一種制度。《梁書·武帝紀中》: 「今九流常選, 年未三十, 不通一經, 不得解褐。若有才同甘顏, 勿限年次。」宋 王安石《太子太傅致仕田公墓志銘》: 「公自常選, 數年遂任事于時。」《元史·張珪傳》: 「近侍不得巧詞復奏, 不該常調之人亦不得濫入常選。」(《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44) 只是: 總是, 都是。《水滸全傳》第四六回: 「老漢每日常賣糕糜營生, 只是五更出來趕趁。」(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99。)

245) 雜識: 古代品官以外的辦事人員。(摘自 百度)

246) 急且: 倉促, 一時間。明·王九思《中山狼院本》: 「狼云: “計策算是妙, 只是不好說。師父, 你猜猜。”生云: “我急且猜不着, 你疾忙說了罷。”」(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846。)

247) 轉: 勳級每升一級叫一轉。(《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48) 原文 '禮上'에서의 '上'은 앞의 주석 234)의 설명에서처럼 '부임하다'로 보았다. 그런데, '禮'에 대한 해석이 난해하다. 이에 '禮'를 '裏'의 誤寫로 보았다. 본문의 '五月裏에서처럼 '裏'는 '時'의 의미를 가지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用例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五月初頭裏上了也'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249) 原文의 '解由'에 대해 「관아의 물품을 관리하던 벼슬아치가 바뀔 때에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책임을 면하던 일」이라는 사건의 설명을 볼 수 있다.

급기관에서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同知: 몇 일전에 관아의 영사(令史)가 가져와서 받았습니다.

甲某: 형장(兄丈)과 같은 선관(選官)²⁵⁰들은 한 계단 한 계단씩 높아진 벼슬이 제수되는데, 저 같은 잡직(雜職)²⁵¹의 관료는 한 직책의 임기를 채우면 언제 다시 관직이 제수될까요?

同知: 그런 말씀은 하지마세요! 형장(兄丈)께서도 높은 자리로 승급되어 제수 될 것인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옛말에 「命來鐵也爭光, 運去黃金失色(운이 닳으면 무쇠도 빛을 발하고, 운이 다하면 황금도 빛을 잃는다)」 말이 있습니다.

< 參考文獻 >

原典類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 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 亞細亞文化史(影印本), 1973年.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 中華書局, 2005年.

錢南揚 著, 《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 臺灣: 華正書局, 1990年.

250) 原文의 '常選官'은 앞의 注 243)번 에서처럼, '常選'은 '정기적인 과거 등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설명을 볼 수 있으므로, '常選官'은 '常選之官' 즉 '과거 등으로 선발된 정예관료'로 해석하여 「당신은 常選의 관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漢語大詞典》'選官'條에는 「(1) 古代稱主管銓選的官, 指吏部(관리를 선발을 주관하는 벼슬, 吏部를 지칭하는 말이다). (2) 指聽候吏部選任官職(吏부의 관직선임을 기다리다).」이라는 풀이를 찾을 수 있다. 諺解에는 '常'을 '쌍쌍(늘)'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이에 諺解에서처럼 「당신은 늘 (吏부의) 선발되는 관원이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常選官'은 뒤에 오는 '雜職人家'와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당신은 常選의 관료이다」라는 해석을 취하였다.

251) 原文의 '雜職人家'는 '雜職之官'으로, 앞의 '常選官'의 對稱으로 보인다. '雜職'은 앞의 注 220)번에서처럼 '品階외의 관료(古代品官以外的辦事人員)'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詞典에 '雜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明清시대의 品階는 九品으로 나뉘지고, 각 品은 또 正과 從으로 구분되며 從九品이 최저등급인데, 이 등급에 들지 못하는 벼슬아치를 아울러서 일컫는다(雜官: 明、清官階均分九品, 每品又各分正、從, 從九品爲最低級, 與其他未入流并稱).」

- 王學奇等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年。
 李小強、王小忠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堅、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詞典類

- 張 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_____,《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顧學頌、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_____,《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_____,《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_____,《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 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_____,《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許少峯,《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勛、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_____,《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王 鐸、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王 鐸,《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_____,《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_____,《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_____ 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 藍立莫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卜鍵 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史 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謝紀鋒 編纂,《虛詞詰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廖珣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陸澹安 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著書類

- 呂叔湘 著,江藍生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胡安竹 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香坂順一 著,江藍生 白維國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_____,植田均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年。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房玉清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 _____,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1984年.
- 日·青山定雄編, 《中國歷代地名要覽》, 臺灣: 洪氏出版社, 1975年.
- 蔣紹愚、曹廣順 主編,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商務印書館, 2005年.
- _____,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2005年.
- 李泰洙, 《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 語文出版社, 2003年.
- 傅雨賢 等著, 《現代漢語介詞研究》, 中山大學出版社, 1997年.
- 魏耕原, 《唐宋詩詞語詞考釋》, 商務印書館, 2006年.
- 郭作飛, 《張協狀元詞彙研究》, 巴蜀書社, 2008年.
- 張美蘭, 《近代漢語論稿》, 江西教育出版社, 2004年.
- 陳秀蘭, 《敦煌變文詞彙研究》, 四川民族出版社, 2002年.
- 程湘清 主編, 《宋元明漢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92年.
- 李嵩興 等著, 《元代漢語語法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9年.
- 장숙영 옮김, 《번역박통사 (상) 주석》, 한국문화사, 2008年.

論文

- 楊聯陞, <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東方學志》, 1955年(臺灣).
- 慎鏞權,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語文學》第48輯, 2006年.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 《中國研究》第37卷, 2006年.
- 최재영·정윤철, <朴通事諺解譯註(2)>, 《中國語文論譯叢刊》18輯, 2006年.
- 王霞·유재원·최재영, <朴通事諺解譯註(3)>, 《中國研究》第40卷, 2007年.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4)>, 《中國研究》第42卷, 2008年.
- 王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第23輯, 2008年.
-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第36輯, 2008年.
- _____,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第22輯, 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第39輯, 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第25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第41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43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44輯, 2010年.
- _____,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叢》27輯, 2010年.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0輯, 2010年.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1輯, 2011年.

- 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47輯, 2010.
- 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48輯, 2011.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26輯, 2006年.
- 맹주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42집.
- 맹주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鄭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鐘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2008年 第1期, 2008年.

< 中文提要 >

《老乞大》近二万字，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用對話的形式，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个方面，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游藝、景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從史學看，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原著者的生平時代，雖不可詳考，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仍可大致認定此二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本子，韓國學者稱之為《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翻譯朴通事》(上：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為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翻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為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

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為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3. 30.	2015. 4. 15.	2015. 4. 29.	2015. 5. 2.	2015. 5. 31.